

2017년 11월 21일, 대정읍 무릉2리 김충사 씨 댁, 이현정 조사.
 김충사(남, 1942년생, 대정읍 무릉2리)

- 줄거리: 옛날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 땔감을 하러 갔다가 똥이 너무 마려워서 참다못해 개울에 일을 봤다. 똥은 개울물을 타고 빨래를 하던 할머니에게까지 내려간다. 할머니는 이것이 된장인 줄 알고 집으로 똥을 들고와 된장찌개를 끓였다. 할아버지가 산에서 돌아오자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밥상에 내놓았는데, 할아버지가 찌개를 맛보니 맛도 이상할 뿐더러 구린 냄새까지 났다. 할아버지는 여태 없었던 된장을 대체 어디서 구하였는지 할머니에게 물었고, 할머니가 자신이 싼 똥으로 된장찌개를 끓인 사실을 알고 기절초풍하였다.

[제보자] 이거 우스갯소리 허나 허쿠다. 이거, 이거 이거 들으민 호깁 영 들이민 굿주만은 무신 똥이여 오줌이여 허는 것이 좋진 안 허진 안 험니까게. 경 허주만은 이거 이자 골으민. 재미있이렌 허는 거난. 이거 혼번 들어 보쿠광?

[조사자] 예, 해주십서. 좋수다.

[제보자] 옛날 옛날에 의좋은 하르방허곡 할망이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었어. 게, 하루는 하르방은 뒷산에 올라가그네 땔나무나 허곡. 땔나무 허여사 그때는 밥 행 먹을 거난 땔나무나 허젠 고지에 간. 갓인다. 삭다리, 그디 삭다리 썩은 나무. 삭다리를 허영 선, 하영 선에

“이젠 오넬은 땔나무를 많이 허곡 집에 가야지.”

허연.

부지런히 삭다리 낭 허연 실러, 실러? 전 허리도 아프곡 허연 일어상, 일어산 운동이나 좀 허난 배가 슬슬 끽끔 아프는 거라. 이제 저 내창에서 낭 허여네 이젠 이제, 지게에 잔뜩 멘에 이젠 정 오젠 헐디. 아, 게 배가 일하니까 운동 이렇게 허멍 허니까 배가 끽끔 아프난 허연.

“아, 이거, 이거 가그네 똥이나, 똥이나 메려와 이젠 죽어지켜. 이거 어디 가그네 볼일을 똥 가삼직 허덴.”

헤여네 이제는. 그런 생각에 두리번두리번 거리다네 생각헌 게.

“에에 나무는 곁에 똥을 싸민 냄새가 낭, 추접힐 거 아니라게. 거난 개울에 가그네 싸민 뇨려가불민 깨끗힐 거난. 냄새도 아이 나곡 좋으켜.”

헤여네 경 헤네, 내창에 앓안 씨원허게 볼일을 보안, 삭다리를 혼 짐 잔뜩 지연.

“이제랑 집에 가사주.”

한편 할망은 어제 일 허여나난

“갈중이영 하근 거 세답덜을 가져강 내창에 강 빨아사주.”

허여네 이젠. 한편 할망은 경 허연 빨래를 부지런히 허연 고개를 들언 보난.
강 저 쪽에서 뭔가 노랑게 둥실둥실 떠오르는 게 아니. 할망은

“저게 무신 건고?”

허연 그것을 잡으려고 강물 쪽으로 들어강 보난

“아이고, 똥장이네 똥장. 어떤 집에서 똥장이 남앙 돌아네 내창에 버렸인고게?
아이고, 하필 우리집엔 요새 똥장이 떨어져네. 간장에만 출레 출렁 먹단 보난.
하르방 똥장찌개를 좋아허는 게. 하르방신디 똥장찌개나 끓여 줘사주.”

그렇게 생각해그네

“그, 똥장찌개 헤도렌 해도 못헤젇인게. 잘 똥져. 이 똥장 가정 강 두부 농곡
파영 하영 놔그네 보글보글보글 맛있게 찌개 끓영. 낭 해온 하르방신디 주민 맛
좋게 먹을 거 아닌가? 빨리 강 끓영 줘야주.”

할망은 집이 들어왕 아인 게 아니라. 구수허게 똥장찌개를 두부로 허연 농곡.
하영 놓고 헤연 맛을 보난 맛이 이상헌 거라. 애호박도 하영 농곡, 풋고치도 송
송 썰영 놔네 하영 놔봤자 맛이 이상헌 거라. 고개를 가우뚱 허명도

“내가 요새 입맛이 영 안 좋안 허엿인디. 입맛을 몰랐인가?”

허연, 헤연.

“하르방이 오민 하르방은 워낙 똥장찌개를 좋아허는 하르방이라. 맛보민 알테주
게. 나사 무신 뭐 요새 입맛도 엇고 허명 어떻사 헛인디 이 맛을 볼 줄 모르크라.”

허명 이젠. 그때 하르방은 삭다리 헝 훈짐 잔뜩 지여네 오명

“할망, 배고판 죽어지크라. 좀심 출려줘.”

“알앗우다게. 하르방이 경 좋아하는 똥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놔이난. 응, 이제
곧 출려 오쿠다. 경 헤영 먹읍서. 하르방이 경 먹고 싶던 똥장찌개를 끓연.”

“똥장은 어디션? 똥장 웃은 거 다향게.”

거난

“이만저만이 헝 똥장에 그거 ㄱ를 커 앓안. 이만저만 그거 전부 그축헝 ㄱ저단
또 끓엿우다.”

허명

“먹어 봅서.”

헤연. 인칙에 곁은 거 식으로 헝 건 멕엿어. 하르방은 배고픈 짐에 찌개를 떼
에 입에 넣으니, 구수한 똥장 맛이 아니고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가게.

“할망, 이거 이상헌 게. 똥장찌개가 아니고 무슨 똥냄새 ㄱ똥 거 나는 거. 똥

냄새 나는 거 닮아. 할망 방귀뀌었어?”

“아니우다게.”

하르방이

“이 똥장 어디서 가져왔어, 거난?”

할망이

“내창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놔이 내창에 버린 똥장인 줄 알앙 꿀엿수다게.”

“아이고, 이 할망구야. 내가 그 내창에서 똥이 하도 마려와네 내창에 간 똥쌈 인디, 그게 내 똥이라. 아이고, 이게 아이고게. 나가 하도 똥 매려완. 그 낭신디 똥 싸민 닐 낭허레 또 와그네 보민 냄새날 거꼭 허나네. 내창에 가그네 그 싸민 은 내려가 불민 깨끗헐 거난. 경 험 싹 거주. 그거 내 똥이로구나게. 아이고, 이 할망구 무신 그 치매 걸리꼭 노망했야? 아이고.”

경 헤네 거 곤단 보난. 우리 손지는 배설창지가 다 끊어지게 웃어, 경 헤연.

[조사자] 그런 얘기들 예전에 어르신네 어렸을 때도 막 많이 헤낫지예?

[제보자] 응, 들었고, 또 어린아이덜신디 이런 재미진 말을 골으민 귀가 베지그릉 헤그네 입 아웃허고 경 들어. 경 허민 이거 진짠 줄 알게. 경 골으민 손지덜이 좋아허여 그네 허난.

- 핵심어: 하르방(할아버지), 할망(할머니), 똥, 내창, 똥장(똥장), 똥장찌개(똥장찌개), 우스갯소리, 똥낭(똥감)